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입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최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발행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진 편집: 진홍용 편집: 양재용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추감사주일 및 제5차 성찬식(1~5부예배)

애굽을 떠나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로 풍성한 토지의 소산을 수확케 하시고, 맥추절을 지킬 것을 명하십니다. 이것이 최초의 맥추절이었습니다. 맥추절은 히브리 원어로는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 절기 관련 명칭 중 가장 오래된 것이며(출 23:16) 후대에는 일반적으로 칠칠절, 오순절 등으로 불렸습니다. 맥추감사절은 한 해의 첫 번째 수확을 끝낸 기쁨 속에서 그 수확을 가능하게 해 주신 주님께 기뻐하며 감사를 드린 축제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후 9:15). 오늘, 맥추감사절을 지키며 2011년 상반기 동안 끝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의 손길을 느껴 보십시오. 현재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영원한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롬 8:2). 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성찬식(1~5부 예배 시)을 통해서 더욱 깊이 체험하며 예수님께 진실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고전 15:57). 예수님, 감사합니다!

위임목사 동정 위임목사님이 휴가 중입니다.
영육의 강권함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민음의 섬터, 코이노아 휴게실 안내 본지 7면

예수 그리스도는 문이다

김성진 위임목사

자신들이 목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종교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양의 우리'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요 10:1~5).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요 10:6).

예수님은 무지하고 교만된 종교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요 10:7). 예수님은 '문'이다. 더 정확히 말해서 '양의 문'이다. 양은 시력이 너무 좋지 않아 자신이 가는 길조차 모른다. 무지한 양들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한 우리로 연결된 문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 문이 되신다. 이 문은 양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이 되어야 한다. 양은 고만하지 않는다.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들기 때문이다. 우리가 양이 될 때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예 2:18).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곧 형벌의 심판에서의 구원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요 3:17). 양이 되어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면 모든 죄는 깨끗해진다(롬 5:1).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후 5:17).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요 5:24). 그리스도는 구원의 문이다. 아멘.



WALKING THROUGH THE CEMETERY

⁽³⁾When Adam had lived 130 years, he had a son in his own likeness, in his own image; and he named him Seth.

⁽⁴⁾After Seth was born, Adam lived 800 years and had other sons and daughters. ...

⁽²⁶⁾And after he became the father of Lamech, Methuselah lived 782 years and had other sons and daughters.

⁽²⁷⁾Altogether, Methuselah lived 969 years, and then he died.

(Genesis 5:3-27)

In today's Bible verses we find the first account of human beings naturally dying. After Adam and Eve were kicked out of the Garden of Eden death entered the world. No one died in the Garden of Eden, but everyone outside its guarded gates dies. No one can live forever on this earth. We all walk through the cemetery outside of Eden. Even though God made Adam who we consider to have lived a long time, he still died. He was the one who made the first cemetery, and all his descendants must go there also. Each person born is appointed to die, "Just as man is destined to die once" (Heb. 9:27). Reading through this particular chapter is sad, but it also offers hope. In between the various death notices we find a man who walked with God and God took. The Word of God gives us the good news of eternal life, even in this chapter.

Death is certain. Adam, the very first human being, lived 930 years and then died (Gen 5:5), his son Seth lived 912 years and then died (Gen 5:8), Seth's son Enosh lived 905 years and then died (Gen 5:11), and the longest living human being, Methuselah, lived 969 years and then died (Gen 5:27). Why did they all die? Why do we have to die? God said, "And the Lord God commanded the man, 'You are free to eat from any tree in the garden; but you must not eat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for when you eat of it you will surely die'" (Gen. 2:16-17). God never lies! Satan tempted Adam and Eve to doubt God's word. "'You will not surely die,' the serpent said to the woman. 'For God knows that when you eat of it your eyes will be opened, and you will be like God, knowing good and evil'" (Gen. 3:4-5). Satan is the liar. Sadly, Adam and Eve did not trust God's word, and the result was death. Death is a curse from God because of His promise. The very first naturally born children were Cain and Abel. Abel was the first human being to die early. He died from his brother's hand, not naturally (Gen. 4:8). The consequences of sin are horrific and deadly, but God has given us a gift of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Rom. 6:23). If you don't prepare in death by accepting God's gift, you can't prepare after.

Life is certainly not perfect. Just look at your life and you can be sure it's not perfect. Everyone dies at different times. Too many people think they are going to die later rather than sooner, and put off becoming a Christian. The fact is you don't know if you're going to die today, tomorrow, or later. Abel died early. Peter said, "For, 'All men are like grass, and all their glory is like the flowers of the field; the grass withers and the flowers fall, but the word of the Lord stands forever.' And this is the word that was preached to you" (1 Pet. 1:24-25). James said, "Now listen, you who say, 'Today or tomorrow we will go to this or that city, spend a year there, carry on business and make money.' Why, you do not even know what will happen tomorrow. What is your life? You are a mist that appears for a little while and then vanishes. Instead, you ought to say, 'If it is the Lord's will we will live and do this or that.' As it is, you boast and brag. All

such boasting is evil. Anyone, then, who knows the good he ought to do and doesn't do it, sins" (Jam. 4:13-17). When you get old you will surely die, but even babies and young children die. Solomon, the wisest of men, said, "Remember your Creator in the days of your youth, before the days of trouble come and the years approach when you will say, 'I find no pleasure in them'" (Ecc. 12:1). Even Jesus reminded His listeners of the importance of salvation today when He told of how the fool rich man said to himself, "You have plenty of good things laid up for many years. Take life easy; eat, drink and be merry." God told the poor rich man, "You fool! This very night your life will be demanded from you" (Lk. 12:19-20). This man wasn't prepared. He was wise in earthly things, but he was a fool for eternal things.

Eternal life is certain for some. There are a lot of cemetery markers in today's verses, but there's one person without, "When Enoch had lived 65 years, he became the father of Methuselah. And after he became the father of Methuselah, Enoch walked with God 300 years and had other sons and daughters. Altogether, Enoch lived 365 years. Enoch walked with God; then he was no more, because God took him away" (Gen 5:21-24). What a lovely statement! Enoch walked through the cemetery, but he was different than other people because he walked with God. In this life, we must walk by faith. If you walk through the cemetery with faith you are going to be a new creature,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2 Cor. 5:7,17). So now your body is better than Adam's. Adam walked with his own knowledge, but you can walk by faith.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and this not from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not by works, so that no one can boast" (Eph. 2:8-9). Faith gives us salvation and allows us to have eternal life. Do you walk with Jesus Christ by faith in this cemetery? If you don't, you're in eternal trouble because the Bible clearly says, "He who has the Son has life; he who does not have the Son of God does not have life. I write these things to you who believe in the name of the Son of God so that you may know that you have eternal life" (1 Jn. 5:12-13).

My dear friends, take a moment and examine your cemetery surroundings. Everyone around you thinks they're great and they're proud of their accomplishments. They try and show you how happy they are, but be honest with yourself. We all walk through the cemetery, but there is hope. God loves you and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so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die but receive eternal life. If you accept God's gift by faith, He will walk with you and you will have eternal life. I love today's Bible verses. It looks like there's no hope, but God walks with people. Are you going to walk with God through your faith in Jesus Christ or are you going to follow your own way? Please open your heart to hear the Word of God and walk through the cemetery with Him. Amen. 

공동묘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

⁽³⁾아담은 백삼십 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⁴⁾아담은 셋을 낳은 후 팔백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 ⁽²⁶⁾라벨을 낳은 후 칠백팔십이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²⁷⁾그는 구백육십구 세를 살고 죽었더라
(창세기 5:3~27)



강성원 목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죽음에 대한 첫 기록을 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에덴동산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았지만 그 경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에덴 밖에 있는 공동묘지에 살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의뢰로 조된 아담이 오래 살았을지라도 그도 분명히 죽었습니다. 아담은 첫 공동묘지를 만든 장본인이고, 그의 모든 후손들도 그곳을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즉 태어난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히 9:27). 그래서 이 특별한 장을 읽는 것이 슬프지만, 이 말씀은 또 다른 소망을 줍니다. 다양한 죽음의 기록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다 취함 받은 한 사람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전부인 것 같은 창세기 5장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첫 인간이었던 아담은 930살(창 5:5)까지 살다 죽었고, 그의 아들 셋은 912살(창 5:8), 셋의 아들 에노스는 905살(창 5:11), 인간 중에 가장 오랜 산 므두셀라는 969살(창 5:27)까지 살다 죽었습니다. 왜 그들은 모두 죽었을까요? 왜 우리는 죽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너희 죽으리라"(창 2:16~17).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창 3:4~5).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슬프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그로 인한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선악과 약속으로 말미암은 그분의 지주입니다. 자연적으로 태어난 첫 자녀들은 바로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최초로 요절한 인간이었습니다. 자연사가 아닌, 자신의 형에게 살해당한 것입니다(창 4:8). 죄의 결과는 끔찍하고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롬 6:23). 하나님의 선물을 받음으로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이후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불완전하다

확실히 생명은 불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만 보더라도 불완전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른 때에 죽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지금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미루거나, 그렇지만 진실은 여러분이 오늘, 내일 또는 그 후에 죽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일찍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라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벧전 1:24~25). 야고보는 "들러서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 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약 4:13~17)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분은 분명 죽겠지만 아이들과 어린이들조차도 죽습니다.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잠 12:1)라고 권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회중들에게 어리석은 부자가 한 말을 가지고 구원의 긴급성을 상기하게 하셨습니다. "영혼아 여러 해 풀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눅 12:19~20). 이 부자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의 일에는 지혜로웠지만 영원한 일에는 미련했습니다.

영생이 있다

영생은 몇몇 사람에게는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많은 공동묘지 비석들이 있지만, 그 비석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녹은 욥심도 세에 므두셀라를 낳았고 므두셀라를 낳은 후 삼백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삼백육십구 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창 5:21~24).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에녹은 공동묘지를 걸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믿음으로 공동묘지를 살아가면 여러분은 반드시 새 피조물이 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지금 여러분의 몸은 아담의 몸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지식에 근거해 살았지만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엡 2:8~9).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줍니다. 이 공동묘지 안에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걷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성경이 정말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요일 5:12~13).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묘지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신들이 이룬 업적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공동묘지에 살고 있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는다면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저의 오늘 말씀이 정말 좋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길로 나아가겠습니까?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님과 함께 공동묘지를 걷기 바랍니다. 아멘. ■



2011년 제2차 청지기훈련

왜 복음이 감추어졌는가?

어두워진 눈에서 비늘이 벗겨질 때

내용물 선교를 위해 훈련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제2차 청지기훈련을 맞이했다. 주님은 '왜 복음이 감추어졌는가'란 주제를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목사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신을 구원해 준 복음을 우리의 복음이라고 외친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우리에게 골수를 쫓겨듯이 말씀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하늘로부터 내려온 복된 소식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리지 않았는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온전히 만났는지 가슴 깊이 돌아보게 하셨다. 복음 전하는 자는 정말 간절하고 신실해야만 함을 느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어두워진 눈에서 비늘이 벗겨질 때 죄와 구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신 목사님을 통하여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나 자신을 점검하여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다.

박정윤(집사, 20교구)

선택은 둘 중 하나다

금요일의 교통정체를 뚫고 도착해 청지기훈련 교인과 출석표를 받아 자리에 앉았다. 목사님의 모습과 동시에 정심으로 단호하게 전하시는 말씀의 힘이 느껴졌다. 여러 곳으로부터 온 많은 성도들과 말씀을 따라 읽으며, 찬양도 함께 불렀다. 은혜의 말씀은 선포되었고 오늘 집회는 끝났다. 분주해진 차량봉사 집사님들의 손지와 딱 막힌 골목은 붉은 브레이크 등 행렬들의 소란함 속에 모두들 각자의 처소로 서서히 사라져 갔다. 운전하며 돌아오는 길에 내 머리 속에서 전도하러 마음을 먹었지만 말 못한 사람에 대한 아쉬움과 '양자택일'이란 단어가 주는 긴장감이 남아 있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선택의 연속이다. 무엇을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등의 다양한 일상의 선택에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 따라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한다.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의 선택은 구원받은 자, 잃어버린 자(망하는 자) 둘 중 하나의 선택이 있을 뿐이다. 그 중간도 없고 또 다른 함정도 없다. 구원받은 자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며, 잃어버린 자는 믿지 않는 자이다. 양쪽에 걸친 자도 역시

망하는 자이다. 복음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지식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분명하고 단순하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죄를 고백하고 보혈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복음은 이해되어 지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은혜이다. 우리 모두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며,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한 분, 예수의 이름뿐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이 세상의 신은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지도록 만들고 우상을 사랑하게 만든다. 돈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심의 결과는 망하는 자의 길이며 이들에게는 복음이 감추어져 있다. 나의 생활에서 세상의 우상으로 격정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가? 참과 거짓의 사이에서 선택이 있을 뿐 다른 선택은 없다. 복음을 받은 자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 전하는 자의 간절하고 신실한 심령이 부족한 나를 돌아보며 마음의 쫄림과 회개에의 시간이 되었다.

위결호(집사, 7교구)

모두 엄청난 악이었다

나는 이번 청지기훈련에서도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마음이 새로워졌다. 찬양도 좋았고 말씀도 너무 좋아서 집합할 수밖에 없었던 이번 청지기훈련은 '왜 복음이 감추어졌는가?'(고후 4:3~4)의 주제로 예배가 시작되었다. 사람들 너무 많이 와서 나는 갈릴리움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갈릴리움도 본당만큼 꽉 찼고, 찬양을 부를 때에는 모두들 한 마음이 되어서 찬양을 부르는 모습이 너무 좋았다. 위임목사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다. 나는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죄가 하나님께는 엄청난 악일 줄 몰랐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했던 죄가 모두 엄청난 악이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 자주 죄를 짓게 되는 게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정경 그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다면 복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교회를 가고 다니는 것인지 나에게 질문해 보았다. 인정 받기 위해서? 사교성을 기르기 위해서? 교회에서의 직위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가? 이제는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싶다. 내가 영혼의 갈급함을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청지기훈련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은혜로웠다. 믿음의 힘을 조금 더 기르려 한다. 이번 청지기훈련은 멋진 은혜의 밤이었다.

정민호(고등부)

믿음은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너무나 오랜만에 금요찬양집회에 갔습니다. 중등부 선생님이나 전화를 해주셔서 참여하게 되었는데, 사람들도 너무 많고 중등부 친구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평소 금요찬양집회가 아닌 청지기훈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찬양이 함께 나와 있는 책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찬양도 멋있고, 목사님은 말씀도 열심히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졸지 않고 끝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김성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 좋았습니다. 믿음은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왜 믿지 못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고맙고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을 더 많이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금요찬양집회에 같이 가자고 말하고 싶어졌습니다.

김익식(중등부)



이 세상의 신을 사랑하여

선교를 마치고 바로 청지기훈련에 참석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지기훈련 말씀을 들으며 선교 주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 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전 1:17). 아직 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관제가 비취져서 우리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땅 끝까지 비취지기를 바라며 일어나 벨렐로 올라가 남은 육체의 때를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는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진정 다른 복음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라서 이 세상의 신을 사랑하여 복음이 감추어진 자로 살고 있구나’ 하는 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죄 사람을 위하여 속죄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맞추어져야 함을 깨닫는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청지기훈련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의 삶의 답임을 알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허순재(권사, 24교구)

문제는 나에게 있었다

한 주 동안 청지기훈련 말씀의 주제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했다. ‘왜 복음이 감추어졌는가?’ 모르는 단어도 없는데, 주제가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많은 시간 동안 교회에서 복음에 대한 증거와 전파에 대한 사명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한번쯤 궁금해 했을 법도 한 ‘복음이 왜 감추어졌을까?’의 질문. 지금 생각해 보면 맹목적으로 그러려니 받아들었을 뿐 소자 여물을 먹듯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길질 하는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부분의 문제는 나에게 있었다. 모든 원인의 출발점은 나이며 도착점은 주의 말씀이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고 성경이 복음인데 복음이 감춰진 것은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책장을 넘기듯 읽은 것 같다. 이번 청지기훈련을 통하여 주님이 나의 모든 중심에 존재하시며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게 되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이나 나를 돌보신다는 확신이 더 굳어지는 것 같다. 오늘도 성경말씀으로 나의 모든 생활이 지배되기를 소망한다.

김현정(집사, 청년2부)

나 같은 죄인을 지명하여

그동안 복음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라곤 간단명료하게 지식적으로만 알아왔던 나에게 이번 청지기훈련은 많은 회개와 더불어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의 영혼에 푸른 잎사귀를 회복하게 된 은총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복음 앞에 사탄은 늘 밀 개루트 하려고 요구하나 주님은 보살겼음이 이 작은 믿음의 떨어지지 않기를 늘 기도하시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이르도록 인도해 주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며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주님 앞에 나 행한 것 죄뿐임을 고백하며 늘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르며 언제나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을 알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죄인을 구원코자 오신 주님! 세상적인 지혜로 가득한 니고데모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수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갈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아 복음의 증인 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민(집사, 1교구)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땅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후 4:3-4)”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구원에 감사하여 날마다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 함에도 두 세계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것을 먼저 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이번 청지기훈련을 통하여 되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을 꾀박하던 그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복음만 전하던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삶의 변화를 느껴야 한다. 주님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을 다시 되돌아 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셨다.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자존심을 다 버리고 영혼 구원의 절급함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 담대하게 전하기를 소망한다.

이명애(집사, 19교구)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날까지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지혜, 지식, 경험에 아닌 오직 마음으로 믿음이 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오늘 다시 알게 하여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 주신 이 복음을 우리의 복음이라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가 클수록 많이 부끄럽습니다.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며 풋대를 향해 산다면서 사실은 내 의를, 내 자존심을, 내 이기심을 위한 눈이 멀고 벌어버은 어리석은 삶이었음을 자백합니다. 나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말구유에 나섰고, 내 죄를 대신하여 날 멸망시키지 않게 하시려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의지가 앞을 가려 복음이 가리이지 않게 도와 주시고 내가 꼭 대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도와 주소서. 어두워진 눈과 귀에서 비늘을 벗겨 주시고 죄와 구원,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보고 찾게 도와 주소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소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날까지.

이화영(집사, 11교구)



성경BIBLE PANORAMA 파노라마

성경의 절기

절기는 정기적으로 과거의 특정 사건을 기념하여 그 뜻을 오늘에 되새기기 위한 제도이다. 성경의 절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원리에 근거한 일차 구분 및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특별한 구원사역을 행하신 사실을 근거로 선민 이스라엘에게 의무 조항의 하나로 규정하셨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비록 신약의 성도가 히브리 절기를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아니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절기는 구약의 구속사적 의미가 깊은 것이므로 그 절기가 갖는 영적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한다.



명칭	시기	목적	내용	의미
구원사건 기념절기	유월절	• 니산월 14일 저녁(출 12:6 ; 레 23:5 ; 민 28:16) •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신 16:1) •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려 주심을 상기시키기 위한(출 12:16-20)	• 1월 10일에 준비한 흠 없고 1년 된 어린 숫 양을 14일에 무교병, 쓴 나물과 함께 먹음(출 12:8) •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출 12:7)	• 유월절 희생양은 흠 없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시(요 1:29) • 성도들이 사탄에서 구원받음을 예시(요 3:16) • 성민찬을 암시(마 26:17-29)
	무교절	• 니산월 14일에 시작하여 1주일간 계속됨(레 23:5-6) • 애굽으로부터 급히 빠져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의 고생을 기념하기 위한. 무교병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회생과 봉사를 의미함(출 12:16-20)	• 7일간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민 28:19-24) • 7일간 무교병을 먹고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이고 노동을 금함(출 12:15-20)	• 무교병은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의 전적인 회생과 봉사를 암시(고 후 5:8) •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몸이 성도들을 위해 찢기심을 암시(히 9:12-14)
	수전절	• 아홉 번째 달 25일부터 8일간 • 유다 마카베오의 승리와 그의 지도력 아래 성전이 정화되고 재 봉헌된 것을 기념	•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 없이 각 집에서 지켰으며 첫날부터 매일 한 개의 촛불을 더해 8일째에는 8개의 촛불을 켜	•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 각자가 몸의 성결을 힘써야 함을 예시(엡 1:21-22)
	부림절	• 아달월(태양력 2,3월) 14,15일(예 9:17) • 유대인이 에스더와 모르드개에 의해 하만으로부터 구출된 것을 기념(예 9:31)	• 유대인이 구원된 13일에는 축제 준비로 금식을 하고 14일 저녁부터 회당에 모여 에스더서를 낭독함 • 하만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회중은 '그의 이름은 말살될지어다. 악인의 이름은 소멸될지어다'를 외침. 이튿날에도 낭독은 계속되며 오락을 하고 가난한 자에게 선물함(예 9:19,22)	•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구원됨을 암시 •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늘 사탄의 계제로부터 지켜주시고, 궁극적으로 성도에게 구원과 상급을 내려주심을 예시(시 19:11)
농경축제절기	초실절	• 유월절 후 첫 안식일 이튿날(레 23:11) • 곡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첫 곡식단을 봉헌함(레 23:10 ; 롬 8:23 ; 고전 15:20-23) • 모든 필요의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음을 인정(레 23:9-14)	• 추수 전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요제로 흔들어 바침(레 23:9-10) • 번제와 소제, 전제를 드림(레 23:13) • 예물로 드리기 전에 사람이 먼저 먹어서는 안 됨(레 23:14)	•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로서 성도들의 부활의 보증이 되심(롬 8:23) • 하나님께 바쳐진 첫 이삭 단은 성도와 교회를 암시
	맥추절	• 무교절에 첫 이삭 한 단을 요제로 드린 날 곧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출 23:16, 34:22 ; 레 23:16) • 밀 추수의 첫 소산을 바치고 봉헌하기 위한. 성전 파괴 후에는 시내 산에서 율법 받은 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지켜짐(출 23:16)	• 모든 수확물은 첫 열매를 제물로 바친 뒤 여야 사용 가능함(민 28:26-31) • 떡 두 덩이로 요제를 드림(레 23:17) • 남자들은 할렐루야시 113-118편을 부르며 가무에 참가함	• 오순절 축복, 곧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님이 강림하심을 예시(행 2:1-4) • 오순절에 바치는 떡 두 덩이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상징으로 봄
	초막절	• 티쉬리월 15일부터 1주일간 계속됨(레 23:34 ; 민 29:12) • 광야 생활 중 인도, 보호하신 은혜를 기념(신 16:13-17) • 토지 소산의 추수를 마칠 때 여호와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한	• 새벽-해맞이와 관련된 의식 • 아침-헌수 의식 • 밤-축제 의식	• 이 세상 인생 길이 초막에 거하는 나그네의 길임을 보이며, 우리의 영원한 집은 오직 하늘 나라에 있음을 보여줌(삼 3:4)

'쿵쿵 쿵쿵' 요란한 소리

이번 선교에서 나의 마음을 가장 뜨겁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마을에서 초등학교 졸 되는 아이의 집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아이는 내가 전도지를 읽어 주면 곧 잘 따라서 전도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전도지를 함께 읽은 후에는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다른 집으로 이동하기 위해 그 집을 나서는데 '쿵쿵 쿵쿵'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아이는 나와 함께 읽은 전도지를 벽에 대고 뒤편으로 고정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도지를 반복해서 읽을 아이를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벅찼습니다.

김현근(안수집사, 6교구)



새가족양육부 수료자

십자가는 무조건적인 사랑

✠ 의숙부님의 인도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서서 말 그 유예에 누이신 분이며, 인간을 사랑하시어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회개하고 은혜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고, 온자가 아니며, 갖고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지만 봉사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정주)

✠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동토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뜻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인간들은 원죄와 살면서 죄를 짓게 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인간을 사랑하시어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하신 분입니다. 육에서 나서 육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이었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정주)

새가족부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완전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사신을 믿고 최 많은 저를 복음으로 구원에 주신다는 것을 느끼며 배후신 크나 큰 은혜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박기현)

✠ 주님의 큰 선물 중 하나인 친구의 권유로 중원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십자가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인류는 죄로 인해 영벌을 받아야 마땅했지만 주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그 죄를 담당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에 주시는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다는 점과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음의 여유와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좋습니다. 무엇보다 달란전 점은 이전과 다른 시야로 삶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전에는 삶을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안절부절하기도 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또 성경공부를 하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 삶을 더 밝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박종희)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4개 팀)

기 간	팀	팀 장
7월 4일(월) ~ 7월 12일(화)	17교구 1팀	박찬욱
7월 4일(월) ~ 7월 12일(화)	직원 1팀	김어현
7월 5일(화) ~ 7월 13일(수)	20교구 2팀	강석화
7월 7일(목) ~ 7월 14일(목)	세가족원회 1팀	김철남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5개 팀)

기 간	팀	팀 장
6월 27일(월) ~ 7월 4일(월)	5교구 2팀	오준봉
6월 27일(월) ~ 7월 5일(화)	5교구 3팀	김희동
6월 27일(월) ~ 7월 5일(화)	11교구 4팀	김현배
6월 28일(화) ~ 7월 6일(수)	12교구 1팀	이상범
6월 28일(화) ~ 7월 6일(수)	15교구 1팀	박원희

✠ 저는 무신론자였습니다. 내에는 아들과 함께 중원교회에 다녔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아들이 다른 아버지는 같이 다녀서 부럽다'고 했고, 저는 아비 된 데로 한 달에 한두 번 차로 태워다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개월, 주일에 교회에 다니면서는 복잡했던 게 심경이 편해졌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속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 예수님을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잘못을 알고 회개한다면 용서해 주실 분이시며, 언제든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힐 아픔도 감행하실 분입니다. 정적인 믿음이 아닌 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추종하는 순간은 잊혀지고 뒷길은 치는 순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주)

코이노니아 휴게실, 아직도 모르세요?



지난 6월 4일에 문을 연 코이노니아 휴게실이 개장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었다. 많은 이들이 이용하였고, 좋은 반응을 보였다. 주말에는 잠시 쉬어가는 믿음의 허브로, 주간에는 구역 모임이나 소규모 성경공부 장소로나 담소를 나누기에 여할 나위 없이 좋은 공간이 때문이다. 앞으로 코이노니아 휴게실은 모든 성도의 안락한 쉼터가 되도록 더욱 성실한 헌의를 제공할 것이다.

위 치 중원교회 제2교육관 1층
매 뉴 커피 · 음료 · 쿠키 · 머핀 등
이용방법 쿠폰제(쿠폰 구입은 사무국)
이용시간 화요일~금요일(9:00~18:00)
토요일 · 주일(9:00~16:00)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중원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명	교역과정	교구	인도자	번호	성명	교역과정	교구	인도자
2502	박예민	영아부	20		2520	원지연	양육반	12	김구형
2503	김준우	중등부	7	위희원	2521	박지혜	양육반	17	허옥선
2504	유경나		3	윤은희	2522	권오근	양육반	3	홍학선
2505	이현식	교역자			2523	김 영	양육반	1	신영주
2506	정경화	교역자			2524	이서진	초등1부	13	양수진
2507	이기원	초등2부	교역자		2525	이광수	양육반	24	이주승
2508	이희원	초등1부	교역자		2526	한복수	양육반	1	김희숙
2509	이희원	유치부	교역자		2527	주숙이	양육반	14	안오순
2510	이서준	영아부	4		2528	이서은	초등1부	6	이혜진
2511	박진원	양육반	18	후순옥	2529	윤지연	양육반	16	김진희
2512	김현아		7	윤은희	2530	김지호	양육반	1	이혜주
2513	김정남	초등1부	11	김경민	2531	이광순	양육반	6	신창호
2514	김영중	양육반	12	강성진	2532	박찬우	양육반	13	박 남
2515	장민재	초등1부	9	이영지	2533	염지연	에바디부	25	이수정
2516	이민우	초등2부	9	이영지	2534	한정규	대학부	9	윤용성
2517	황지영	양육반	21	신선애	2535	김민호	대학부	6	박상준
2518	이상민	양육반	2	이근덕	2536	김동규	초등1부	20	강진규
2519	이 비	초등2부	14						

